

제1강 국어 음운론 심화 학습 1

I. 음운의 개념과 유형

1. 핵심 개념 잡기

<보기>

가. ㄱ. 불 : 뿔 : 풀, 기름 : 구름 : 고름 : 거름, 삼 : 산 : 상 : 살

ㄴ. 무리 : 우리, 무리 : 모기

나. 감기[ka:ngi] / 밥[po̞p]

다. 성인: [성:인](聖人) / [성인](成人)

라. 잘#안다-자란다 / 난#운다-나눈다

마. 학교에서 공부해.↗ / 학교에서 공부해.↘ / 학교에서 공부해.→

1) <보기>의 각 자료에서 도출해야 할 핵심어(key word) 찾기 및 핵심 개념 기술하기

가

: _____

나

: _____

다

: _____

라

: _____

마

: _____

2) 음운의 개념(핵심어(key word)를 3개 이상 제시할 것)

3) 음운의 유형(핵심어(key word)를 2개 이상 제시할 것)

4) 자음과 모음의 구별 : 모음과 자음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구별하는가?

(1) 음성학적 차이점

① 모음 :

② 자음 :

(2) 음운론적(음절 구성 상) 차이점

① 모음 :

② 자음 :

II. 음절에 대한 이해

1. 음절의 개념: ‘집이[지비]’

2. 한국어의 음절

1) 한국어 음절의 구성

(1) 초성(onset) : _____이 오는 위치

(2) 중성(nucleus) : _____이 오는 위치

(3) 종성(coda) : 발음할 때 _____의 위치에 오는 소리로 _____으로 이루어진다.

2) 한국어에서 가능한 음절구조

(1) _____ : 아, 오, 이, 우

(2) _____ : 가, 나, 무, 소

(3) _____ : 입, 온, 울

(4) _____ : 감, 공, 문

3) 한국어 음절의 특징

(1) 초성과 종성에서 소리 낼 수 있는 자음은 각각 _____이다.

(2) _____이 없으면 음절이 구성되지 않는다.

(3) 한글은 음소 문자이지만 표기는 _____처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_____ 표기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1. 다음은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글 표기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tree>

<print>

트리

프린트

2. 한국어의 주격조사 ‘이/가’는 ‘집-이’, ‘바다-가’에서와 같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느냐 자음으로 끝났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Silk라는 이름을 가진 외국인의 이름에다 주격조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점에서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Ⅲ. 국어 자음에 대한 통시적 이해

1. 시대별 자음 체계의 변천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전	후	근	현		전	후	근	현		전	후	근	현		전	후	근	현		전	후	근	현	
				고	기	기	중	세	고	기	기	중	세	고	기	기	중	세	고	기	기	중	세	고	기	기	중	세
장음	안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ㅅ	ㅈ	ㅊ	ㅌ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ㅌ	ㄴ	ㄷ	ㄱ	ㅋ	ㆁ	ㄷ	ㅌ	ㄴ	ㄷ	ㄱ	ㅋ	ㆁ
			된소리			ㅃ	ㅅㅅ	ㅆ				ㅆ	ㅆ	ㅆ						ㅅㅅ	ㅅㅅ	ㅆ		ㅎ	ㅎ	ㅎ	ㅎ	ㅎ
			거센소리	ㅍ	ㅑ	ㅓ	ㅕ	ㅗ	ㅌ	ㅍ	ㅑ	ㅓ	ㅕ	ㅗ					ㅋ	ㅋ	ㅋ	ㅋ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ㅊ	ㅌ					ㅈ	ㅊ											
			된소리													ㅆ	ㅆ											
			거센소리						ㅈ	ㅊ	ㅌ					ㅈ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ㅆ	ㅌ	ㅌ	ㅌ											ㅎ	ㅎ	ㅎ	ㅎ	ㅎ
			된소리							ㅆ	ㅆ	ㅆ	ㅆ															
	울림소리	비음	음	ㅁ	ㅂ	ㅅ	ㅈ	ㅊ	ㄴ	ㄴ	ㄴ	ㄴ	ㄴ						ㅇ	ㅇ	ㅇ	ㅇ	ㅇ					
			유음						ㄹ	ㄹ	ㄹ	ㄹ	ㄹ															
공명음	유성마찰음		음			ㅃ																						
			유성마찰음							ㄷ																ㅇ		

※ ‘ㅅ, ㅈ’은 중세국어 시기에는 사실상 치조구개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 고대 국어의 자음

- (1) 파열음과 파찰음에 평음과 유기음의 두 계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된소리 계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된소리가 나타나지 않음.

2) 전기 중세국어의 자음

- (1) 된소리 계열의 자음이 등장하였다. 속격조사(ㅁ)나 관형사형 어미(ㅍ)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 등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어두자음군은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3) 후기 중세 국어의 자음

- (1) 훈민정음의 초성 체계에 의하여 평음과 유기음의 양 계열이 있었다.
- (2) 어두에 된소리 계열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 가. 각자병서 표기(ㅁ, ㅂ, ㅅ, ㅈ, ㅊ) :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만 사용됨
 - 나. ㅃ, ㅆ : 어두음 표기
 - 다. ㅅ계 합용병서 : ‘ㅅㅅ, ㅆㅆ, ㅃㅃ’
 - 라. ‘ㅆ’은 어두에 나타나지 않았다.
- (3) 유성마찰음 ‘ㅃ, ㄷ, ㅇ’이 있었다.

4) 근대 국어의 자음

- (1) 유성마찰음 계열의 ‘ㅃ(>w), ㄷ, ㅇ’가 없어지고 ‘ㅆ’의 된소리가 추가되었다.
- (2) ‘ㅎ’의 된소리가 있었다. (예 : ㅎ->혀-)

- (3) 중세국어에서 어중에만 나타나던 ‘ㅈ’이 된소리(마쭈비, 조쭈와 등)가 17세기에 어두에도 나타난다. 이는 중세국어 어두자음군이 된소리로 변한 사실과 관련될 수 있다.

(예 : 쫄, 짹 등)

5) 현대 국어의 자음

- (1) 장애음에 소리의 세기에 따른 대립이 있다.
- (2)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 체계가 아니다.
- (3) 어두와 어말에 자음군이 올 수 없다.

2. 자음의 음절 구조 제약과 자음 관련 음운 현상

1) 음절 구조 제약

- (1) 어두자음군의 존재와 그 변화 : 후기 중세국어

유형	보기	특징
‘ㅅ’계	ㅅᄃ, ㅅᄅ, ㅅᄇ	‘ㅅ’계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된소리화 됨
‘ㄴ’계	ㄴᄃ, ㄴᄅ, ㄴᄇ, ㄴᄈ	‘ㄴ’계와 ‘ㅃ’계는 자음군(중자음)으로 사용되다가 17세기 선조 때 된소리 됨(ㅃ 계는 16세기부터 된소리로 처리하는 경향이 많음)
‘ㅃ’계	ㅃᄃ, ㅃᄅ	

→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와는 달리 어두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었다. ‘ㄴ’계, ‘ㅃ’계 어두자음군이 그것인데 이들은 근대국어에서 대부분 된소리로 변화했으나 일부는 유기음화하였고, ‘ㄴᄈ’은 ‘ㄴ’이 탈락하였다.

(2) 두음 법칙(頭音法則)

가. 후기 중세 국어 : 어두음에 특정한 음이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으로 중세국어 시기에 는 ‘ㅇ, ㅁ, ㄷ, ㄹ’이 오는 것을 회피하였다.

나. 근대 국어 : ‘ㄴ, 겹자음’이 어두음에 오는 것을 회피하였다.

다. 현대 국어 :

ㄱ. 어두의 /ㄴ, ㄹ/이 /i, y/를 만나면 탈락한다.(예 : 선량/양심, 여자>여자)

ㄴ. 어두의 /ㄹ/이 /i, y/ 이외의 단모음을 만나면 /ㄴ/으로 교체된다.(예 : 로변>노변)

ㄷ. 단, ‘라디오, 로봇, 뉴스’ 등과 같은 외래어나 ‘녀석, 냥, 리’ 등은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음운 현상

(1) 구개음화(口蓋音化)

가. 근대 국어

부터>_____, 김치>_____, 형님>_____

-음운론적 환경 : _____

-형태론적 환경 : _____

나. 현대 국어

-굳이 → [], 해돋이 → [], 견히다 → [], 밭이 → [],
 밭이랑 → []
 -마디 → [], 디디다 → [], 느티나무 → []

-음운론적 환경 : _____

-형태론적 환경 : _____

<생각해 봅시다!>

1. ‘님금>임금, 뉘>있, 리자>이자’의 예에서와 같은 어두음 탈락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2. ‘가져 → [], 다쳐 → []’의 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 위의 1과 2의 현상과 구개음화는 관련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학습 내용 자가 점검

1. 현대국어와 근대국어의 ‘ㄷ’ 구개음화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국어의 어두와 어말 자음군 제약에 대해 설명하시오.